

# 장 튀르사와 요셉 그라우-가리가의 작품에 대한 조형기호학적 분석 <자유> vs <희망을 위한 기념물>

김세원  
디자인대학 섬유디자인전공

## <요 약>

모든 학문에 편재되어 있는 기호학이 미술사에서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하면서 미술 작품을 하나의 기호로 보고 해석하려는 방법이 시도되었다.

본고에서는 20세기 전·후반기에 티피스트리 작업으로 두드러지게 활동했던 프랑스의 장 튀르사와 스페인의 그라우-가리가의 작품을 조형기호학적으로 통사구조와 의 미구조를 비교 분석 함으로써 차별성을 모색하려는데 있다.

## A Plastic Semiotic Analysis between Jean Lurçat and Josep Grau - Garriga's Tapestry Works <Freedom> vs <Monument for Hope>

KIM, SE-WON  
Department of Textile Design

### I. 머리말

오늘날 언어, 문화, 종교 뿐만 아니라 예술 등 모든 학문에 편재하고 있는 기호학이 미술사에서 새롭게 조명 받기 시작한 것은 후기 구조주의가 영미권에 유입되어 포스트 모던(Post - Modern)이라는 이름으로 변신을 꾀하면서 그 현상을 기호로 해석하려는 흐름이

형성되었으며 또한 미술작품을 하나의 기호로 보고 해석하려는 방법이 시도되었다.

하나의 미술작품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으며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가를 기호학적으로 분석해 보려는 것은 직관과 체험, 선입견 만으로 한계에 부딪치거나 편견과 오류에 치우칠 염려가 있을 때 의도적으로 검토하고 인공적으로 조작해서 기호의 의미작용과 의미의 창출과정을 읽어보려는 것이다.

따라서 본 고(考)에서는 20세기 현대 섬유예술로서 타피스트리의 부흥과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장 뒤르사(Jean Lurçat)의 작품 <자유>와, 그리고 이와는 기법과 양식상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요셉 그라루 - 가리가(Josep Grau -Garriga)의 희망을 위한 기념물>을 조형 기호학적 접근을 통하여 구조·의미 측면에서 그 차이를 비교 검토해 보려는데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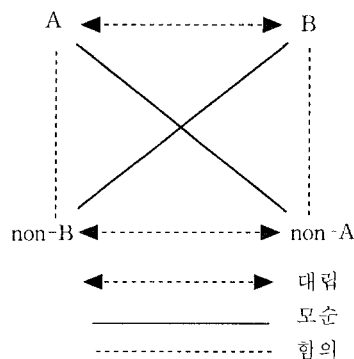
연구수행을 위한 방법로서는 분석적 기대 효과를 생산적으로 나타내주는 그레마스(A .G. Greimas)의 기호사각형을 활용하였다.<sup>1)</sup> 기호사각형은 ‘의미작용의 기본적 구조’로 불리는 형태로 이분법(binairism)적 대립의 관계에서 출발한 모델이다. 그리고 의미의 심층구조 속에 보편적이며 논리적인 모습을 띄고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된다.<sup>2)</sup>

따라서 작가의 작업 배경과 함께 작업에 대한 구조적상황과 의미상황 즉 표현면(기표)과 내용면(기의)에 대하여 서술한 후 대립항의 관계구조를 분석, 검토하므로써 차별성의 문제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I. 뒤르사의 <자유>에 대한 구조의미 분석

뒤르사는 20세기 타피스트리의 디자인과 직조예술의 부흥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 시인이자 화가이자 타피스트리 작가이다. 그는 1892년 프랑스 보슈(Vosges) 지방의 브뤼제르(Brugeres)에서 태어났으며 의학을 공부한 후 포기하고 낭시 학교장(學校長)인 빅토르 프루베(Victor Prouve)를 만나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1) 기호사각형을 구축하기 위해 기호학은 언어내에서 작용하는 두 가지 유형의 대립관계, 즉 길성관계와 질적관계, 달리 말하면 모순과 대립을 인식한 구조 언어학의 지식을 이용한다.



2) 김준오 외, 『구조주의』 (고려원, 1992), 92쪽

비록 그의 타피스트리가 제작되어 1917년에 전시되었지만 타피스트리 디자이너로 돌아서게 되는 1936년까지는 화가로서 활동하였다. 1939년 화가 뚜생 뒤브레이유(Toussaint Dubreuil)와 마르셀 그로메르(Marcel Gromaire)와 함께 16세기 이래 타피스트리 직조와 역사적으로 관련된 오비송(Aubusson)으로 가서 장인 위버 프랑스와 타바르(Francois Tabard)와 협력하여 현대 타피스트리 제작을 위한 센터를 건립하였다.

뤼르사가 디자인한 1,000여개 이상의 타피스트리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4계절(Four Seasons)> (1940), <묵시록 타피스트리(Apocalypse Tapestry)> (1948)와 <세상의 노래(The Song of The World)> (1957-64) 등이다. 뤼르사는 또한 극장을 위한 세트와 의상디자인, 도자기, 책삽화 등도 하였으며 타피스트리에 관한 책 만큼이나 도자기에 관하여 서도 저술하였다. 그는 1966년 1월 6일 생 폴(Saint Paul)에서 사망하였다.<sup>3)</sup>

## 1. 작품의 구조적 상황

다음 작품은 독일군의 침략에 대한 반항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영감을 받아 1943년에 처음 제작한 것으로 전쟁으로 인한 암울한 상황속에서 자유와 억압을 표현한 것으로 먼저 전체구조를 기호적 형식내에서 조형적 대조로 분석해 보면 커다랗게 세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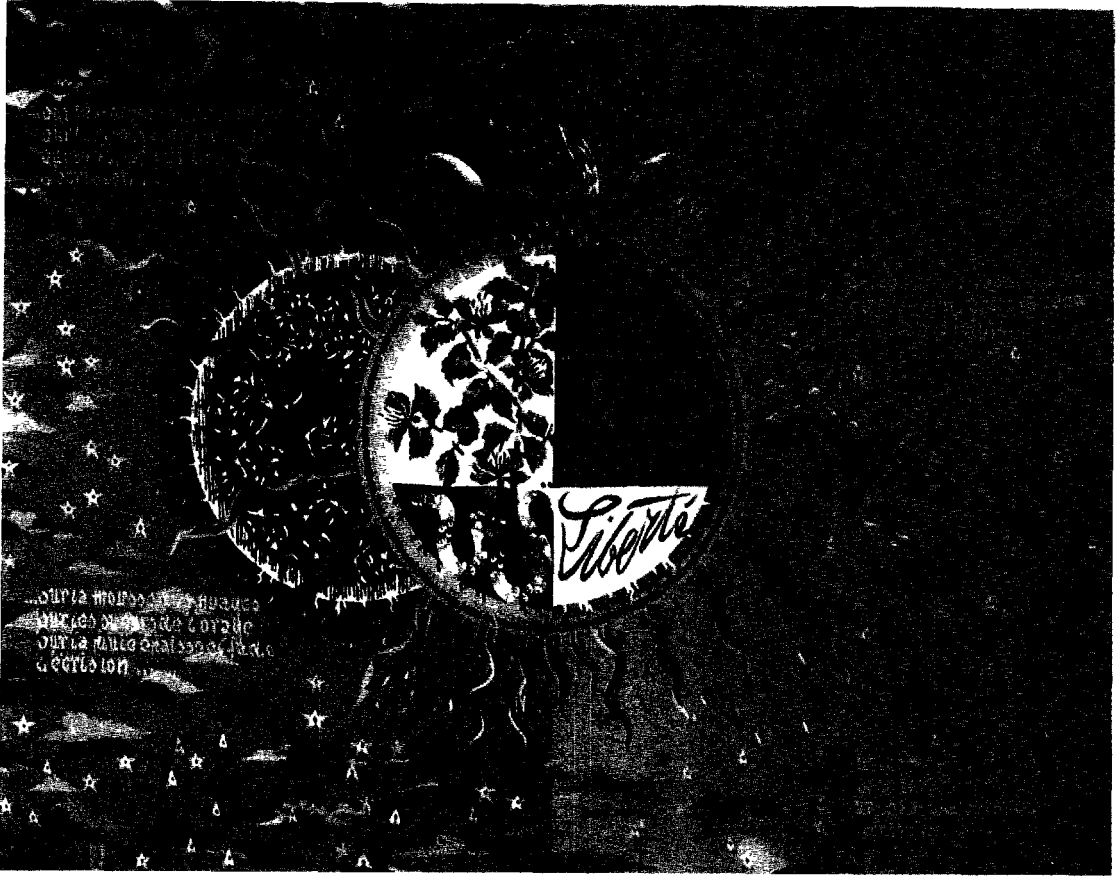
- 1) 노란색의 배경
- 2) 태양과 반쯤 가려진 달
- 3) 미노타우로스<sup>4)</sup>의 뿔과 수탉

등의 계열체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체구조를 서술해 보면 대단히 대칭적인 구조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란색 배경(바탕)은 태양을 양분하는 선과 일치하여 좌측과 우측으로 커다랗게 나누어져 있으며 폴 엘뤼아르(Paul Eluard)가 1942년에 쓴 '자유'라는 저항시가 전복하려는 듯한 어조의 시구들로 좌우상하에 한 구절씩 표현되어 있고 구름과 별들이 화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

3) Encyclopedia Britannica; Vol 7, 568쪽

4)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파시파에와 소 사이에서 태어난 머리는 소이고 몸은 사람인 괴물.



<자유>, 283×364cm, 1943.

화면의 중앙에는 강렬한 불꽃으로 떠오르고 있는 태양이 반쯤 가려진 어두운 굴레의 달과 쌍을 이루고 있으며 태양은 흰색과 검은색의 바둑판 무늬로 4등분되어 있는데, 좌측에는 선악과 나무와 뱀이, 우측에는 엘뤼아르 시의 마지막 절이 적혀있는데, 그 하단에 자유(Liberté)라는 단어가 차용되어 쓰여져 있다.

바로 태양의 상단에는 수탉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 미노타우로스의 뿔이 달린 버리를 밟고 해를 치며 어둠속에서 밝아오는 새벽을 알리고 있다.

이 구조를 다루는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핵심은 의미의 사각형, 즉 기호를 가지고 의미를 연구하는 기호학적 사각형이다. 먼저 기호학적 사각형을 사용하여 어떤 이야기의 분석을 시작하려면 이항 대립쌍(binary opposition)을 찾아야 하는데<sup>5)</sup>, 상하좌우로 잘게 쪼개어 분절해 보면 다음과 같이 형태면과 배경면에서 대립쌍을 찾을 수 있다.

5)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4), 28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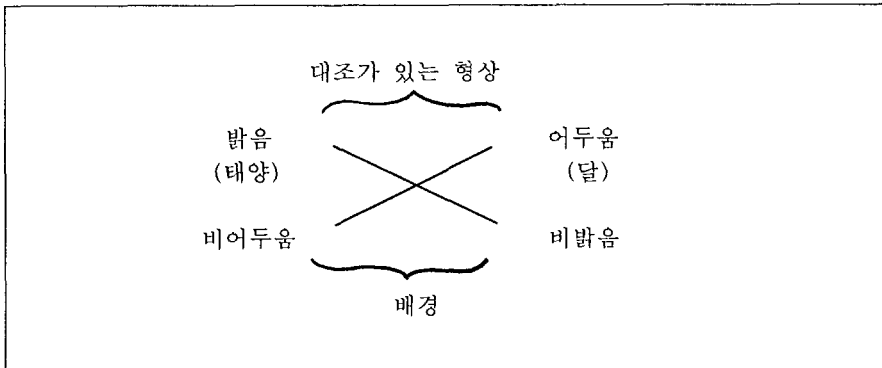
형태면

강하게 비추는 태양 …… / 대 / …… 약하게 비추는 달  
 태양의 밝은 테두리 …… / 대 / …… 달의 어두운 테두리  
 태양속의 ‘자유(Liberté)’ …… / 대 / …… 달 속에 얽힘(혼돈)  
 선악과 나무 …… / 대 / …… 사악한 뱀  
 어둠속에 미노타우로스 …… / 대 / …… 새벽을 알리는 수탉  
 단순한 미노타우로스의 뿔 형태 … / 대 / … 날카롭게 발산되는 태양열 형태

배경면

수직의 우측 밝은면 …… / 대 / …… 좌측 어두운 면  
 수평의 상단 구름 …… / 대 / …… 하단의 구름

따라서 전체를 구성하는 세 부분의 조형적 자질들의 관계 구조를 검토함으로써 대립항들을 다음과 같이 기호사각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 2. 구조에 대한 ‘의미’의 대응적 시도

뒤르사의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대표적인 동물의 소재 가운데 하나는 수탉이다. 수탉은 어둠과 밝음을 경계하는 새벽의 존재로서 또한 빛의 도래를 예고하는 존재로서 태양을 상징하기도 한다.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1940년 6월 독일에 점령을 당하는데 전쟁의 공포와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이 땅에 자유가 도래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초기 그리스도교에게 있어서 닭이 사도와 전도사의 상징으로 이교도의 발을 물러나게 하고 그리스도교의 새벽을 선포하듯이<sup>6)</sup> 자유를 외치고 있다. 더욱이 그리스 신화에 등장

6) 한국문화 상징사전 I, 동아 두산, 201쪽.

하는 괴물 미노타우로스는 뿔이 달린 머리 부분만이 보이고 있는데 공포의 대상으로 프랑스를 침공한 침략자로 그리고 있다.

수탉이라는 존재가 워르사에게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사건 앞에 한 민족에 대한 모든 분노와 모든 반항을 타피스트리속에 표현해 준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sup>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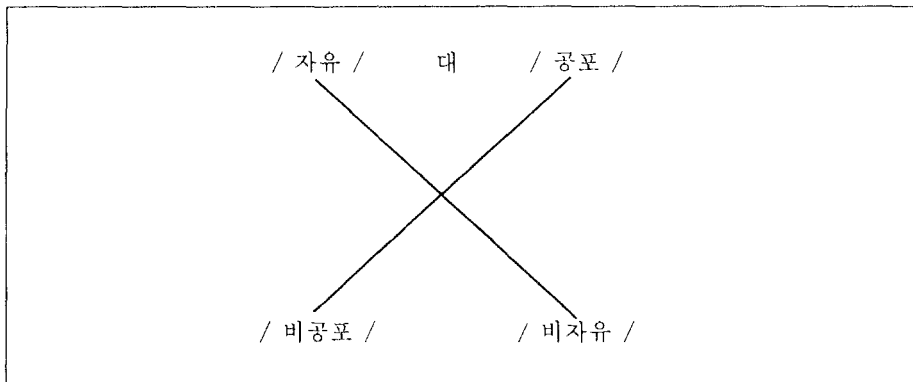
화면의 중심부에 위치한 태양도 장 워르사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모티브이며, 생명을 주는 생명의 본질적인 삶을 화폭에 표현함으로써 태양이 암시하는 상징적 의미의 핵을 영웅적인 힘과 용기, 창조적인 힘과 창조력으로 승화시켰다. 또한 태양의 가장 포괄적인 정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태양은 우주가 보여주는 남성적인 힘, 달은 여성적인 힘으로 간주된다. 이런 사실은 한 인간에게는 태양이 표상하는 능동적인 능력, 곧 성찰, 훌륭한 판단, 권력 의지와 달이 표상하는 수동적인, 곧 상상력, 감성, 지각같은 두 심적 능력이 있음을 암시한다.<sup>8)</sup>

달은 차고 기울었다가 다시 차는데 그것이 주기적, 항구적으로 되풀이되기 때문에 달은 삶이나 시절의 영고(榮枯)와 흥망성쇠를 상징한다. 또 달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죽음에 비유되고 차고 기울은 탄생에 이은 성장과 노쇠에 비유되는데<sup>9)</sup>, 태양이 남성을 달이 여성을 상징한다고 할 때 태양이 단독적으로 등장하는 것 보다 달과 결합이 되면 그 의미가 강해진다.

크리스트교에 있어서 아담과 이브를 타락시킨 뱀은 간계와 교활의 상징으로 인간에게 범죄와 병마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이브로 하여금 원죄를 저지르도록한 악의 무리이며 그 원죄로부터의 해방된 자유로운 삶을 소망한다. 달 속의 복잡한 얽힘은 혼돈으로 이어지는 현실의 억압된 상태를 보여주는데, '자유(Liberté)'라는 문자와 의미대조를 이루고 있다.

흥변을 상징하는 구름과 희망을 상징하는 별들이 빛과 어둠으로 나뉘어진 배경속에 산재되어 있고, 저항시인 엘뤼아르가 쓴 '자유'라는 시가 상하좌우 중앙에 한 구절씩 짜여져 있다. 타피스트리의 성장과 관련하여 워르사에게 큰 도움을 준 것 중의 하나는 그의 '시적 원천'이며 '시적인 원천'은 그의 작품세계의 한 체계를 구성한다.

작품의 구조적 상황에서 밝음은 자유를 나타내는 표현체를 통해 실현되는데, 배경의 표현체를 구성하는 어둠과 대립하고 있다. 작품의 의미구조를 만들기 위해 기호사각형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모순항을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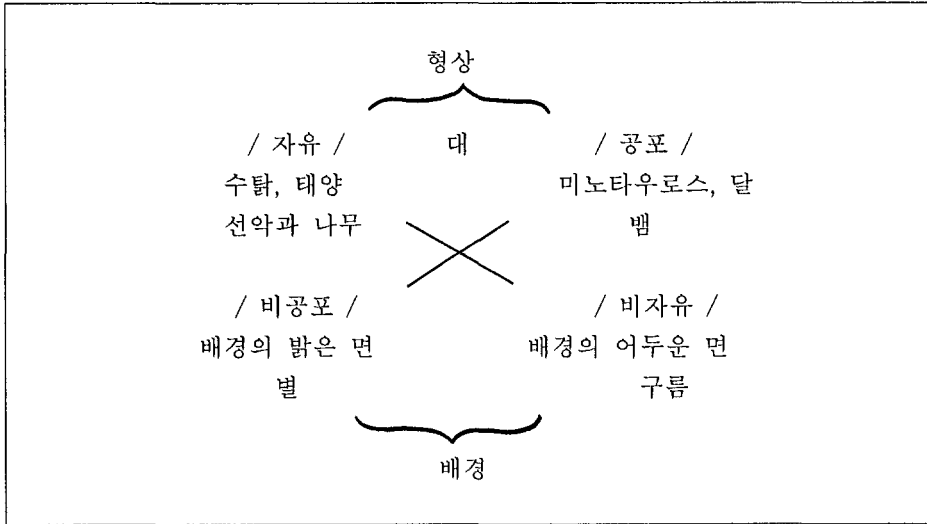


7) 김선아, 「장 워르사의 섬유미술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 논문, 1995), 30쪽

8) 한국문화 상징사전 I, 601쪽

9) 위의 책, 193쪽.

앞의 사각형에서 보여지는 구상적 계층에서 추출한 요소들을 모두 적어보면 다음에서 나타나듯이 / 자유 / 대 / 공포 /의 범주는 주제적인 것이며 작품속의 이미지들로 자유라는 주제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III. 그라우 가리가의 <희망을 위한 기념물>에 대한 구조의미 분석

그라우 - 가리가는 스페인 동북부 지방의 까탈로니아 출신으로 1929년 2월 18일 산뜨 꾸가뜨 델 바예스(Sant Cugat del Valles)에서 태어났다. 그는 유년시절 중병을 앓고 난 후 회복되면서 그림에 흥미를 갖기 시작하여 1942년 까탈란 미술관에서 로마네스크 양식의 프레스코화에 깊은 감명을 받고 미술공부에 전념하게 된다.

그 후 까탈로니아의 수도에 있는 응용미술 공예학교인 료뜨하(Llotja)에서 공부했으며 산뜨 호르디(Sant Jordi)고등미술학교에서 회화와 조각을 전공하였다. 1952년 미술학교를 졸업한 후 회화작업을 계속하여 이듬해 고향 산뜨 꾸가뜨에서 첫 개인전을 열고 공식적으로 데뷔하였다.

프레스코화, 벽화, 스테인드 글라스 여타의 건축과 관련된 작업을 하였으며 회화와 프레스코화로 명성을 얻기 시작한 그는 산뜨 꾸가뜨 마을의 '아이마트(Aymat) 타피스트리 제작소'의 활성화를 위해 벽에 거는 융단 및 카펫에 들어 갈 밑그림의 의뢰를 받으면서 미술과 섬유와의 본질적인 만남의 계기가 되었다.

1957년 첫번째 타피스트리 작품을 제작하였으며 장 튀르사의 영향을 받고 파리에 수개월간 체류하며 장 튀르사의 작업실에서 창조적 작업과정을 연구하였으며 그 후 고향으로 돌아가 까탈란 타피스트리 학교가 설립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sup>10)</sup>

10)이한미, 「요셉 그라우 가리가의 섬유예술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1990), 9쪽.

1960년대에는 회화작품의 병행과 더불어 직조기를 사용하여 기초적 조형실험으로 전통적인 타피스트리 개념과 제작기법에 일대 혁신을 가져왔으며 1970년대에 들어서 극에 달하는 발전적 양상을 보여주는데 평면성은 거의 완벽할 정도로 무시되어 삼차원적인 조각적 형태로 변형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자카드 직조에 의한 소재를 이용한 실험적 폴라쥬 작업으로 ‘폴라쥬 텍스타일’이라고 부르는 폴라쥬 타피스트리 작업에 열중하였다.<sup>11)</sup>

## 1. 작품의 구조적 상황

이 작품은 그라루 - 가리가가 민족주의자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으며 그가 태어난 까탈로니아의 깃발 이미지를 표현한 것으로 자신의 고향인 산뜨 꾸가뜨 텔 바에스 수도원의 장미창으로 장식된 문 앞에 제작해 놓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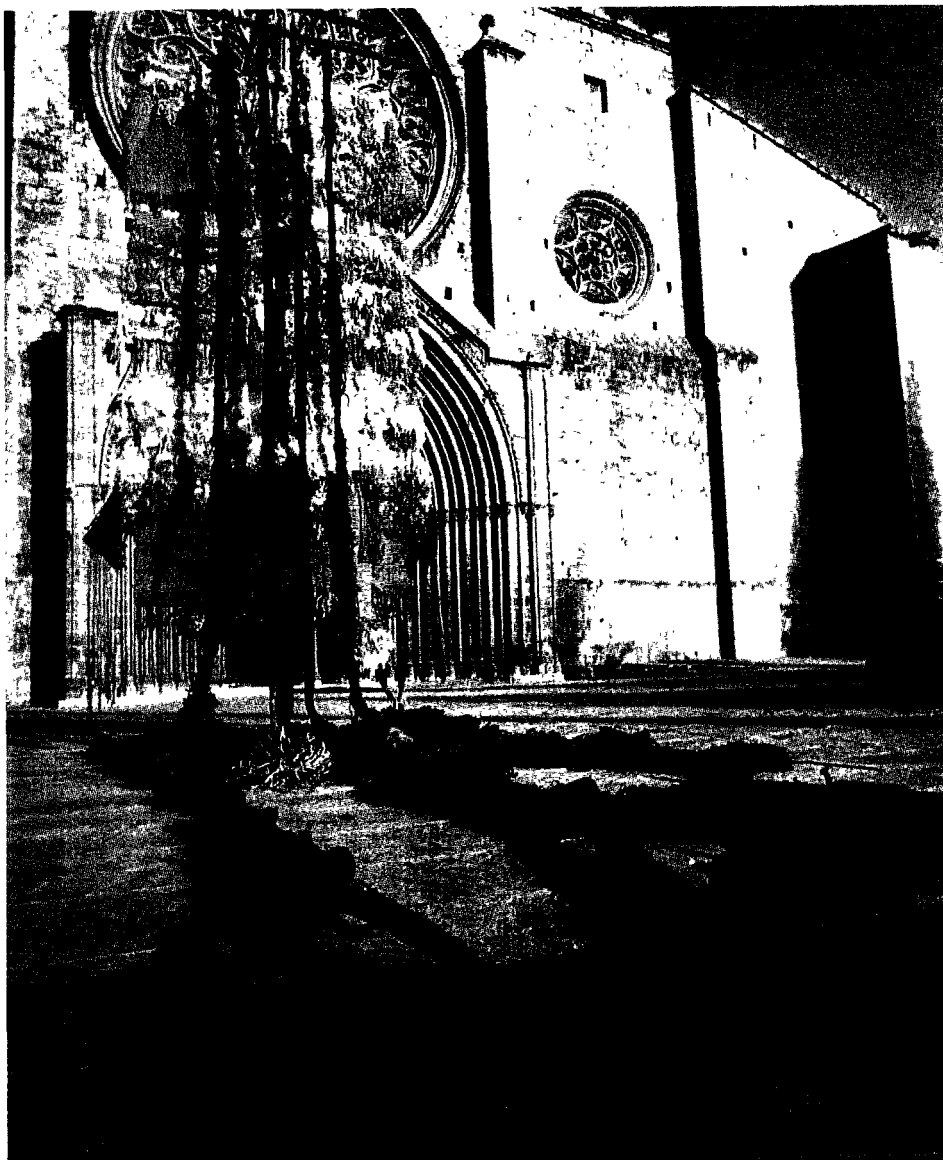
작품의 전체적인 구성은 돌로 지어진 웅장한 건축물 앞에 다양한 음영의 황색의 실로 짠 타피스트리는 그 앞쪽에 코일링 된 4개의 붉은색 밧줄과 함께 걸려져 있으며 바닥에는 연결된 밧줄몽치가 어지럽게 널려져 있는데, 벽에서 공간으로 공간에서 환경으로 기능의 범주가 확대되고 있다.

황색의 타피스트리는 전통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경사와 위사를 풀어헤침으로서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짜여짐과 풀어짐의 대립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위사로 짜여진 면의 불투명한 면과 풀어진 경사면의 사이사이로 보이는 투명함, 풀어져 늘어진 가느다란 경사의 수직선과 4개의 굵고 긴 붉은 밧줄의 수직선이 대립되고 있다. 타피스트리 하단의 원형의 부조적 형태는 무게중심으로 안정성을 갖고 있으며 바닥에 길고 산만하게 늘어진 밧줄은 끝이 돌로 갈라져 둥근 형태로 나타나는데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대립쌍을 취하고 있다.

허공에 매달린 타피스트리 ..... / 대 / ..... 지면에 깔린 붉은 줄  
 황색 타피스트리의 면 ..... / 대 / ..... 붉은색 줄의 선  
 수직의 붉은 줄 ..... / 대 / ..... 수평의 붉은 줄  
 평면 조직의 규칙적인 면 ..... / 대 / ..... 비규칙적인 면  
 평직의 texture ..... / 대 / ..... 파일직의 부조  
 경사 비노출(불투명) ..... / 대 / ..... 경사 노출(투명)  
 풀어져 늘어진 경사선 ..... / 대 / ..... 굵고 긴 붉은 밧줄  
 하단의 동심원 ..... / 대 / ..... 밧줄 끝 부분의 둥근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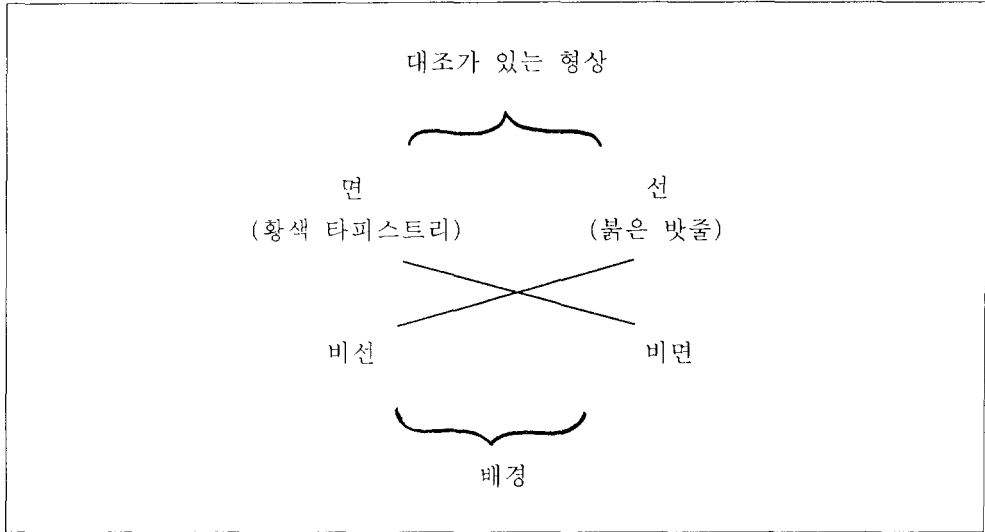
11) 이한미, 앞의 논문, 40쪽.





<희망을 위한 기념물>, 550×230×450cm, 1973

앞의 대조를 통해 직관적으로 파악되는 배경과 형상사이 유사성에 대한 근거를 검증할 수 있는데, 전체구조를 면(面)대 선(線)의 의미범주로 파악하여 면 대신 논리적인 분절을 기호사각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 2. 구조에 대한 '의미'의 대응적 시도

이 작품은 그라우 가리가의 섬유예술의 중추가 되고 있는 타피스트리의 영역을 종래의 평면적이고 실용적인 직물공예라는 차원에서 벗어나 미적가치를 형성하는 예술적 직물로서의 타피스트리에 대한 가치와 공간의지를 내포하는 새로운 조형의식으로 삼차원의 섬유 조각으로 전개시킨 것이다.

산뜨 꾸가뜨 델 바에스의 자연환경과 기념비적 종교건축물은 예술적 실체로서 그의 작품세계를 형성하는 기초가 되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스페인 내란을 계기로 그의 작품 방향을 결정짓게 되며 스페인의 정치적 사건, 까탈란 민족주의 운동<sup>12)</sup>, 아랍국가와 이스라엘 간의 갈등, 월남전 상황 등은 사회적 시각과 비판력을 갖게 하였는데 인간 삶에 만연해 있는 인간의 투쟁과 기만, 이념간의 투쟁, 지적·정서적 갈등과 같은 현실에 대한 심사숙고한 판단을 표출하여 그의 작품세계에 삶을 반영한다.<sup>1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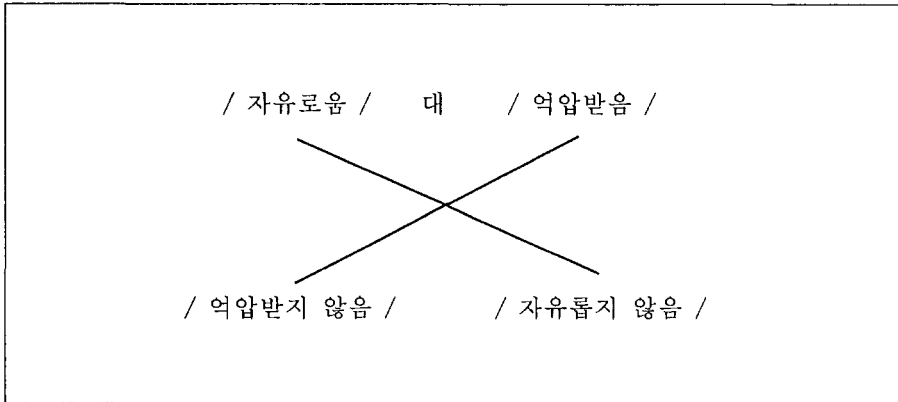
4개의 붉은색 밧줄은 까탈란기의 줄무늬 이미지로서 시대적 상황에 억눌려 있는 민중을 의미하며 대지 속의 억압의 뿌리에서 뻗어나와 황색의 태양이 빛나는 자유공간으로 치닫고 있다. 타피스트리 하단에 동심원은 그러한 자유를 잉태하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과 전체성의 공간이다.<sup>14)</sup> 황마나 삼, 면, 끈 등과 같은 거칠은 소재는 소박한 민중의 현실을 표현한 것으로 위사와 경사의 풀어헤침으로 해체되어 혼란스럽지만 희망과 자유의 빛이 감싸고 있다.

12) 스페인과의 분리를 꾀하는 카탈로니아 자치운동으로서 1714년까지 카탈로니아는 그 자체의 state와 스페인과 유럽의 다른 주민들과 결속된, 그러면서 공존한 다른 주민들에게 그들의 언어나 문화를 강요하지 않았던 나라였다는 것을 명심한 운동이다. 수세기 동안 카탈로니아는 문화와 언어 등이 금지되는 수난을 겪어야 했으나 그 문화, 언어 등을 포기하지 않았다. 각기 1714년에는 부력으로, 현대에 와서는 1936년에 탈취되었으나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독재와 카탈로니아는 상반된 개념으로, 이러한 국가적 identity를 유지하기 위하여 까탈란인들의 투쟁은 평화적이었으며 다른 국가와 공존하면서 자신의 identity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은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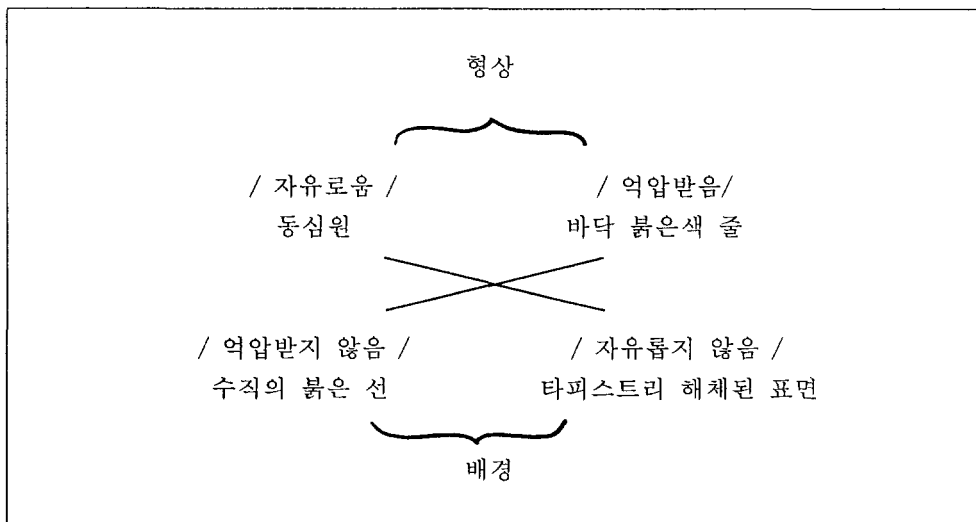
13) 이한미, 앞의 논문, 5쪽

14) 조로쥬 나타프, 김경남 역, 『상징·기호·표시』 (열화당, 1978), 80쪽

작품의 구조적 상황에서 면(面)은 자유로움을 나타내는 표현체를 통해 실현되는데, 배경의 표현체를 구성하는 억압된 것과 대립하고 있다. 작품의 의미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주제적 계층을 분절시켜 만든 범주를 기호사각형에 투사하면 다음과 같은 모순항을 얻는다.



위의 사각형에서 보여지는 구상적 계층에서 끄집어낸 요소들을 모두 기재하면 사각형은 다음과 같이 보완될 것이다.



위에서 보듯이 /자유로움/ 대 /억압받음/의 범주는 주제적인 것이며 작품속의 이미지들은 삶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취하고 있다.

#### IV. ‘자유’와 ‘희망을 위한 기념물’의 비교분석

일체의 인간적 표현들에는 어떤 언어표시라든가 부호, 기호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좀 더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업이나 작품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어떤식으로 조작해 볼 수 있다. 조작이라는 것은 직관적인 체험만 가지고 안 될 때 선입견, 직관, 체험 이런것이 한계에 봉착되었을 때 인공적인 조작과 인위적인 분석을 통해서 의미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바로 의미를 존재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구조인데, 구조주의의 과제는 의미의 생산을 지배하는 규칙들과 관습들(구조)을 밝혀내는 것이다.<sup>15)</sup>

이 구조의미의 분석이 서술된 장 뒤르사와 그라우 - 가리가의 두 작품을 전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먼저 구조적인 측면에서 비교 분석해 보면, 뒤르사의 작품구조는 상하좌우 대립구조의 이차원적 평면작업으로 대칭적이며 형식적이다. 의미를 충실히 하기위한 요소, 즉 의미소들은 정형화 된 대립쌍을 이루고 이항대립의 관계구조가 뚜렷이 나타난다. 따라서 구조 자체가 단순하고 의미실질 또한 하나의 표현에 대하여 하나의 실질(substance)이 대응하는 동어반복적 표현으로 통일감, 질서가 있어 일의적(monosemy)이다. 중앙의 좌우에 위치한 태양과 달 그 위쪽으로 수탉과 미노타우로스가 대립하고 있으며 화면바탕의 좌우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 태양안에 네 부분의 흑과 백은 다시 바탕의 짜여진 저항시의 네 구절과 이접(離接)하며 태양빛과 달빛 등의 위치들이 결합관계로 반복적으로 연결(連接)해 있고 긴장감은 떨어지지만 간격과 여백은 상하좌우 대립에서 모든 관계들과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는 시행로는 이런 하나의 공간안에서 단단하게 조합이 되 있어 의미의 충실성을 성공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해 그라우 가리가의 작품구조는 전후상하 대립구조로 삼차원적인 타피스트리 조각작품으로 공간구조를 이루는 의미소들이 차별적이며 대단히 자유적이다. 위사와 경사를 풀어헤쳐 파괴시킴으로써 형태가 해체되고, 다시 짜여진 반복의 구조를 이루며 밧줄 또한 실이 감기거나 풀어헤쳐지는 구조의 반복으로 의미가 상당히 복잡하고 혼재(hybrid)해 있어 무질서 하다. 아울러 건축물의 크고 작은 원형창, 그리고 밧줄 끝 부분에 갈라진 두 개의 둥근 부분, 층층이 장식된 건물 입구와 바닥에 어지럽게 드리누운 밧줄에 실이 차곡차곡 감긴 형태는 딱딱하고 부드러움의 대립이 이접과 모순의 이점으로 관계구조가 다의적(polysemy)으로 차별성을 띠고 있어 긴장감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뒤르사가 전통적인 타피스트리 기법을 바탕으로 평면 조형을 구성하고 있는 반면에 그라우 가리가는 직조표면에 부여한 삼차원적인 입체조형으로 경사와 위사를 풀어헤치고 조각을 통해서 형태를 해체시키고 실을 늘어뜨리거나 감는 등 기법의 확장과 한계구조의 복합성을 띠고 있다.

15) 존 스토리,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현실과 문화연구, 1994), 111쪽

## V. 맺음말

작품분석의 방법으로 그레마스의 기호사각형은 하나의 동일한 의미범주, 하나의 동일한 구조를 구성하는 변별자들이 유지하는 관계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작품 분석에 있어서 각 시각적 자질들은 각각의 변별적 요소를 가지고 각층위를 형성하고 있다. 보다 객관적인 해석을 위해서 이러한 대립을 통해 각 층위를 분절하고, 심층분석을 통해 의미를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기호사각형의 틀을 이용하여 뤼르사와 그라우 - 가리가의 작품을 구조·의미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차이를 얻을 수 있었다.

- 1) <자유>는 상하좌우 대립구조가 대칭적이며 형식적인 반면 <희망을 위한 기념물>은 전후대립 구조가 차별적이며 대단히 자유적이다.
- 2) <자유>는 이항대립관계가 뚜렷하다. 다시 말해서 의미의 실질은 하나의 표현에 대하여 하나의 실질이 대응하며 대단히 동어반복적인 구조를 띠지만, <희망을 위한 기념물>은 구조의미 자체가 혼재되어 있어 탈구조적이다.
- 3) <자유>는 의미구조가 단순(simple)하고 일의적이어서 화면전체가 질서가 있으나 <희망을 위한 기념물>은 의미구조가 상당히 복잡(complex)하고 다의적이며 무질서하다.

결과적으로 <자유>는 관계구조망이 명료한 모던계열의 작품적 특성이 강하며 <희망을 위한 기념물>은 후기 모던적 작품으로 구분지을 수 있다.

## 참고문헌

### \* 단행본

-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4.  
 김준오, 『구조주의』, 고려원, 1992.  
 김치수·김성도·박인철·박일우, 『현대 기호학의 발전』,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장 마리 들로슈, 『조형 기호학』, 박인철 역, 한길사, 1995.  
 조류쥬 나타프, 『상징·기호·표시』, 김정난 역, 열화당, 1978.  
 존 스토리,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현실과 문화연구, 1994.  
 주디스 윌리엄슨, 『광고 기호론』, 조병량 역, 열린책들, 1978.  
 Puig, Arnau, *Grau- Garriga*, Rizzoli, New York, 1987.

### \* 논문

- 김선아, 「장 뤼르사의 섬유미술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이한미, 「Josep Grau-Garriga의 섬유예술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 사전

- 한국문화 상징사전 I, 동아출판사, 1996.  
 Encyclopedia Britannica. Vol.7

### \* 도록

- LURCAT*, Nouveau Musee Jean Lurcat et de la Tapisserie Contemporaine, 1986.